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 서울특별시		배포일시	2019. 2. 12(화) / 총 1매(본문 1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	담당자	• 팀장 김태형, 사무관 이광민 • ☎ (044) 201-3988, 3982
	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창환, 팀장 이정화 • ☎ (02) 2133-8260, 825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은 차질없이 목표 일정대로 추진 중입니다.

- 우리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 발주절차를 진행하는 등 당초 목표 일정대로 추진 중이며,
 - 고속열차 의정부 연장 관련사항은 향후 추진할 C노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.
-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역시, 공기 단축 및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완공시점에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,
 - 앞으로도 우리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양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 인터넷, 2.11(월)) >

◆ “고속철 의정부 연장 사실상 무산”... 수도권 동북부 주민 강력 반발
- 철도 전문가들, “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완공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”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이광민사무관(☎ 044-201-39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